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 VIP 리포트

■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과 시사점

발행인 : 김 주 현  
편집주간 : 한 상 완  
편집위원 : 주 원, 장후석, 백흥기  
발행처 : 현대경제연구원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7  
Tel (02)2072-6305 Fax (02)2072-6249  
Homepage. <http://www.hri.co.kr>  
인쇄 : 서울컴퓨터인쇄사 Tel (02)2636-0555

- 본 자료는 기업의 최고 경영진 및 실무진을 위한 업무 참고 자료입니다.
- 본 자료에 나타난 견해는 현대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니며 작성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 둡니다.
- 본 자료의 내용에 관한 문의 또는 인용이 필요한 경우, 현대경제연구원 산업연구본부(02-2072-6245)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목 차

---

## ■ 아세안 신흥국 수출시장에 주목하자 :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과 시사점

Executive Summary .....	i
1. VIP 경제권 개요 .....	1
2. VIP 경제권의 부상 .....	2
3.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 .....	4
4. 시사점 .....	9
【별첨】 .....	10
【HRI 경제 통계】 .....	13

## &lt; 요약 &gt;

## ■ 개요 &amp; VIP 경제권의 부상

BRICs 국가들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VIP 경제권(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이 부상하고 있다. VIP 경제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이후 2배 이상 증가하였다. 2012년에는 처음으로 BRICs 경제권의 성장률을 추월하여 신흥시장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였다. 한편 VIP 경제권은 한국에게도 중요하다. 무역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2%씩 성장하고 있고, VIP 경제권에 대한 FDI도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2년 기준으로 VIP 경제권은 한국의 4대 교역권이고 3대 투자대상 지역에 해당한다.

## ■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

**첫째, 낮은 임금 수준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유하고 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0년 2억 7,600만 명에서 2050년 3억 7,90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또한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근로자의 임금수준은 경쟁국인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둘째, 투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투자는 GDP 증가율을 초과하여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도네시아 등의 고정투자 비중은 대부분의 신흥국들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한편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많은 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 VIP 경제권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2002년 31억 달러에서 2012년 310억 달러로 연평균 25.9%씩 증가하고 있다. **셋째,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해 다양한 투자기회가 발생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도시화율(2011년 기준 46.2%)은 매우 낮은 수준이며 2050년(67.2%)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기·통신·물류 인프라에 대한 수요는 크게 증가할 것이다. **넷째, 일인당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중산층이 급증하고 있다.** VIP 경제권의 중산층은 2009년 725만 가구에서 2014년 2,258만 가구로 연평균 25.5%씩 증가할 전망이다. **다섯째, 풍부한 지하자원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는 주석, 니켈 등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과 고무, 코코아 등 농업자원을 보유한 대표적인 자원 부국이다. 필리핀 또한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 ■ 시사점

**첫째,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VIP 경제권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한류 열풍을 적극 활용하여 한국 상품에 대한 우호적인 태도를 조성해야 한다. **셋째, 현지 진출을 통해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VIP 경제권의 자원개발이나 인프라 건설시장은 새로운 블루오션이다. **넷째, 정부는 한국-인도네시아 간의 CEPA 등을 조속히 타결하고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1. VIP 경제권 개요

- VIP 경제권은 동남아시아에 위치한 베트남(Vietnam), 인도네시아(Indonesia), 필리핀(Philippines)을 의미
  - 일본의 경제주간지 <닛케이 비즈니스>는 주목할 만한 신흥시장으로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을 언급하며 앞 글자를 따서 VIP 경제권이라 명명
  - VIP 경제권은 동남아시아의 주축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아세안(ASEAN) 10개국 전체 인구의 70%, 경제 규모의 55%의 비중을 차지(2012년 기준)

#### - 정치적으로 안정화되면서 경제성장을 위한 다양한 개혁 정책 추진 중

- 인도네시아는 민주적 선거에서 승리한 유도유노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서 정치·경제적으로 안정화
- 필리핀은 민주화의 상징인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베니 그노 아키노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정국 안정을 주도
- 베트남은 공산당 주도하의 안정적인 정치환경 아래서 적극적인 시장경제 정책 도입을 통한 경제 성장 추진



<VIP 경제권 소속 국가 개요>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면적	331천km <sup>2</sup> (한반도의 1.5배)	1,904천km <sup>2</sup> (한반도의 8.5배)	300천km <sup>2</sup> (한반도의 1.3배)
수도	하노이(670만명)	자카르타(1,200만명)	마닐라(1,150만명)
인구	9,247만명(세계 14위)	2억 5,116만(세계 4위)	1억 572만(세계 12위)
민족	베트남인(86%)	자바족(41%), 순다족(15%)	타갈로그족(28%), 세부야노족(13%)
종교	불교(44%), 가톨릭(37%)	이슬람교(86%), 개신교(6%)	가톨릭(83%), 기독교(12%)
정치체제	사회주의 공화제	대통령 중심제	대통령 중심제
언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타갈로그어, 영어
통화단위	동(Dong)	루피아(Rupiah)	페소(Peso)
환율	20,854 동/달러	9,360 루피아/달러	41.12 페소/달러
GDP	1,381억 달러 (한국의 12%)	8,782억 달러 (한국의 76%)	2,504억 달러 (한국의 21%)
1인당GDP	1,528달러 (구매력기준 3,635달러)	3,590달러 (구매력기준 4,956달러)	2,614달러 (구매력기준 4,412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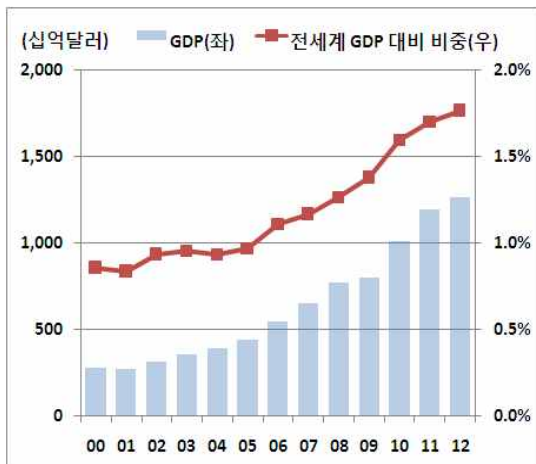
자료: CIA, 수출입은행, IMF, Worldbank, KOTRA.  
 주: 2102년 기준(환율은 2012년 연평균 환율).

## 2. VIP 경제권의 부상

### ○ 새로운 신흥시장으로 부상하고 있는 VIP 경제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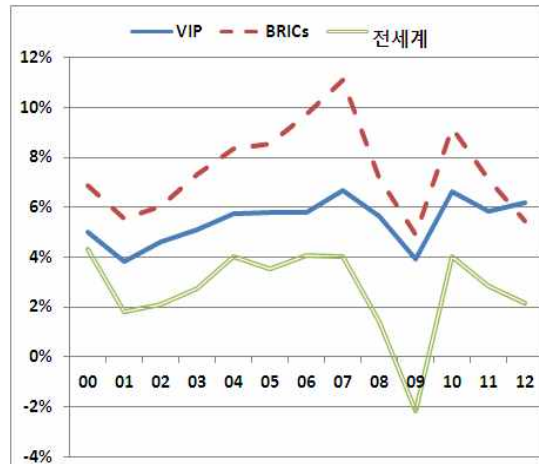
- VIP 경제권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전세계 GDP 대비 VIP 경제권의 GDP 비중은 2000년 0.9%에서 2012년 1.8%로 두 배 정도 증가<sup>1)</sup>
  - IMF는 2018년 VIP 경제권의 GDP 규모가 약 2조 1,730억 달러로 증가하여 전세계 GDP의 2.2%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
- 2012년 VIP 경제권의 경제성장률은 BRICs 경제권을 추월하기 시작
  - 2000년 이후 VIP 경제권의 연평균 성장률은 5.4%로 전세계 평균인 2.7%의 두 배 수준<sup>2)</sup>
  - 2012년도 VIP 경제권의 성장률은 6.2%로 처음으로 BRICs 경제권(5.4%)<sup>3)</sup>을 추월하였고, 새로운 신흥시장으로서의 입지 강화

<VIP 경제권 GDP 규모와 비중>



자료: IMF.

<VIP 경제권의 경제성장률 추이>



자료: Worldban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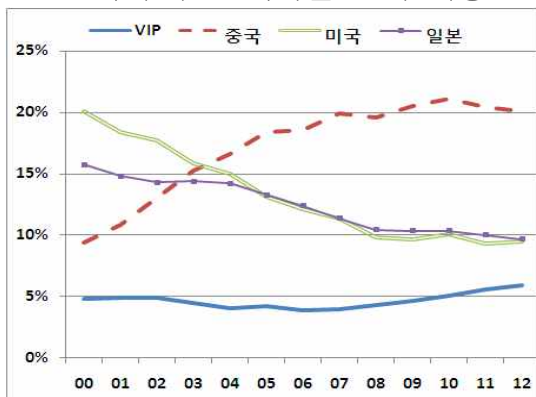
주: 2005년 불변가격(달러) 기준으로 산출.

- 1) 전세계 GDP 대비 인도네시아의 GDP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12년 1.2%, 필리핀은 2000년 0.3%에서 2012년 0.4%, 베트남은 2000년 0.1%에서 2012년 0.2%로 증가.
- 2) VIP 경제권 소속 개별 국가들을 살펴보면, 베트남의 연평균 경제성장률(2000년~2012년)이 7.0%로 가장 높고, 인도네시아 5.4%, 필리핀 4.8% 순서.
- 3) BRICs 경제권 소속 개별 국가들을 살펴보면, 중국은 7.8%, 브라질 0.9%, 인도 3.2%, 러시아 3.4%의 경제성장률 달성.

○ VIP 경제권은 한국의 4대 교역권이고, 3대 투자대상 지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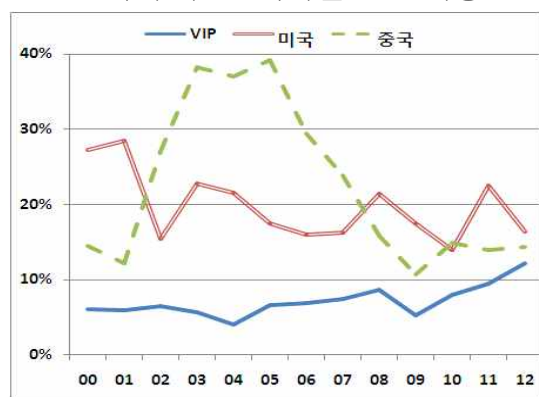
- 총 교역규모 측면에서 VIP 경제권은 한국의 4대 수출입 시장으로 부상
  - 한국과 VIP 경제권의 교역 규모는 2006년 한국의 전세계 교역 중에서 3.9% 비중을 불과했으나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5.9% 차지
  - 한국에게 있어서 VIP 경제권(5.9%)은 중국(20.2%), 일본(9.7%), 미국(9.5%)에 이은 4대 교역권으로 성장(2012년 기준)
- VIP 경제권은 한국의 3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성장
  - 한국의 VIP 경제권에 대한 직접투자 비중은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특히 2009년 5.3%에서 2012년 12.2%로 급격히 증가
  - 2012년 기준 VIP 경제권(12.2%)은 미국(16.3%), 중국(14.3%)에 이은 3대 투자대상 지역으로 부상
- 한편 VIP 경제권 국가들에게 있어서도 한국은 중요한 경제 교류 대상
  - 한국은 인도네시아의 4번째 수출국이자 5번째 수입국이고, 인도네시아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3대 투자국(2012년 기준)
  - 한국은 필리핀의 6번째 수출국이자 5번째 수입국(2012년 기준)이고, 필리핀에 대한 실물부문 투자에 있어서 한국은 일본에 이은 2위의 지위
  - 또한 베트남의 4번째 수출국이자 2번째 수입국이고, 베트남에 투자한 국가들 중에서 4대 투자국(2012년 기준)<sup>4)</sup>

<한국의 주요 국가별 교역 비중>



자료: 무역협회.  
 주: 1) 교역규모는 수출액과 수입액 합계 기준  
 2) 한국의 전세계 교역액에서 차지하는 비중.

<한국의 주요 국가별 FDI 비중>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 1) 외국인직접투자(FDI) 투자금액 기준  
 2) 한국의 전체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4) KOTRA(Global Window), 수출입은행, Statistics Indonesia, National Statistics Office(필리핀), General Statistics Office(베트남) 자료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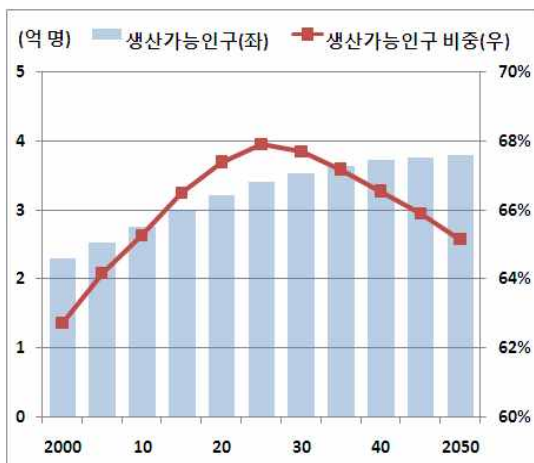


### 3. VIP 경제권의 5대 성장 동력

#### ① (노동력) 풍부한 노동력과 낮은 임금 수준

- VIP 경제권은 약 4억 3,000만 명의 인구 규모를 바탕으로 한 생산가능인구의 지속적인 증가 예상
  - 인도네시아 인구 규모(2억 5,100만 명)는 세계 4위, 필리핀(1억 600만 명) 세계 12위, 베트남(9,200만 명)은 세계 14위의 인구 대국
  - 한편 노동력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생산가능인구(15세~64세)는 2010년 기준으로 2억 7,600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65.3% 비중
  - 생산가능인구는 2050년까지(3억 7,900만 명)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2025년 67.9%를 기록한 이후 하락할 전망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근로자의 임금은 중국 등에 비해 낮은 수준
  - 인도네시아의 자카르타(209달러), 필리핀의 마닐라(325달러), 베트남의 하노이(111달러)와 호치민(130달러)의 공장 근로자 임금은 중국의 베이징(538달러)이나 상하이(439달러) 보다 저렴
  - VIP 경제권의 주요 도시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법정최저임금 또한 중국 보다 낮은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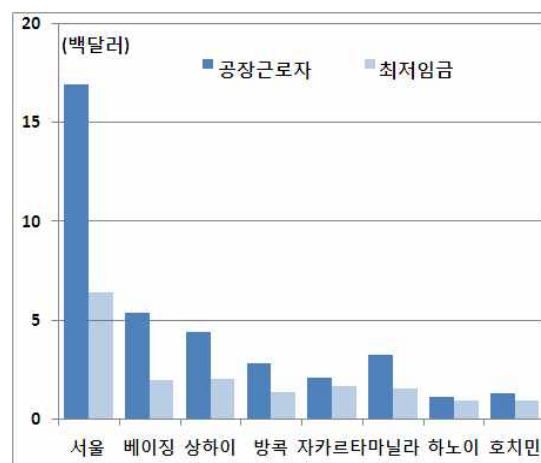
<VIP 경제권의 생산가능인구 추이>



자료: United Nations(2012년).

주: 생산가능인구는 15세~64세 인구 의미.

<VIP 경제권 주요 도시의 임금 수준>



자료: JETRO(201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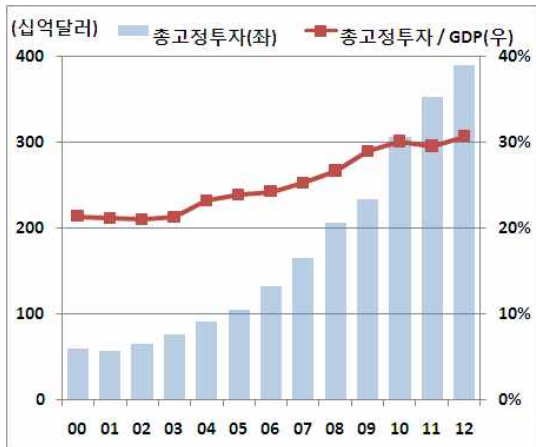
주: 월평균 임금 수준 기준.



② (투자) 대규모 자본유입으로 인한 총고정투자 증가

- VIP 경제권의 총고정투자<sup>5)</sup>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GDP 증가율을 초과
  - 2000년 이후 VIP 경제권의 연평균 고정투자 증가율은 16.6%로 명목 GDP 증가율(13.3%)을 능가
  - 특히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고정투자 비중은 33.9%(2012년), 베트남은 27.7%(2012년)로 다른 신흥국들을 압도<sup>6)</sup>
  - 다만 필리핀의 GDP 대비 고정투자 비중은 21.3%로 인도네시아나 베트남보다 낮은 편에 속함
  
- 투자의 바탕이 되는 대규모의 자본은 많은 부분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음
  - VIP 경제권으로의 해외자본 유입은 2002년 약 31억 달러에서 2012년 310억 달러로 연평균 25.9%씩 증가
  - 동일 기간 VIP 경제권이 전세계 FDI에서 차지하는 비중 또한 0.5%에서 2.3%로 크게 증가
  - 2012년 기준 VIP 경제권으로의 자본 유입액 중에서 인도네시아는 64%(199억 달러), 베트남은 27%(84억 달러), 필리핀은 9%(28억 달러)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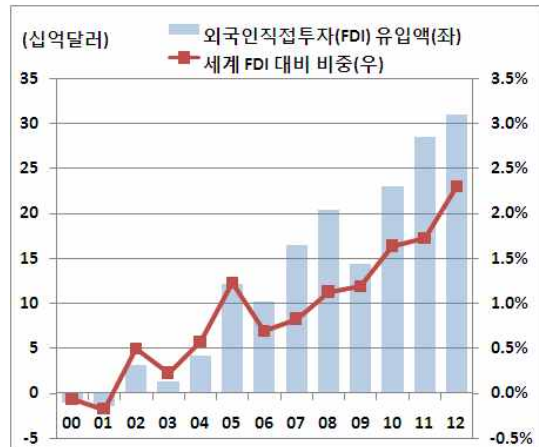
<VIP 경제권의 총고정투자 규모 및 비중>



자료: Worldbank.

주: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는 건설투자, 설비투자, 무형고정자산투자 합계.

<VIP 경제권으로 FDI 유입액 추이>



자료:UNCTAD.

5) 총고정투자(Gross fixed investment)는 다른 말로 총고정자본형성(Gross fixed capital formation)이라고 표현하기도 함.

6) 다만 중국의 GDP 대비 총고정투자 비중은 45.5%(2011년 기준)로 VIP 소속 국가들보다 높음.

③ (도시화) 도시화의 진전으로 인한 인프라 투자 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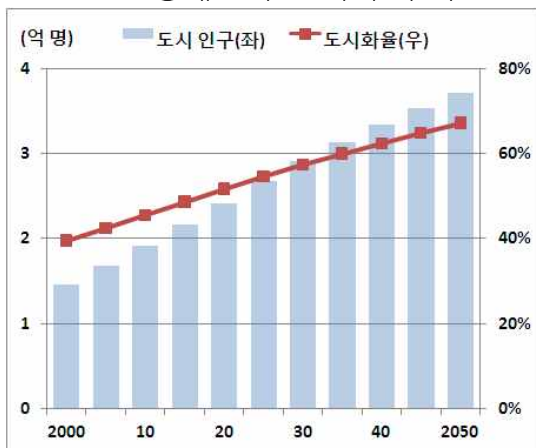
- VIP 경제권의 도시화는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진행될 전망

- VIP 경제권의 도시 인구는 2011년 기준으로 1억 9,700만 명이고 도시화율(도시인구/총인구)은 46.2%에 불과
- 2011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의 도시인구(도시화율)는 1억 2,300만 명(50.7%), 필리핀은 4,600만 명(48.8%), 베트남은 2,800만 명(31.0%) 수준
- VIP 경제권의 도시인구와 도시화율은 2050년(3억 7,100만 명, 67.2%)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전망

- 경제발전과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기·통신·물류 등 다양한 인프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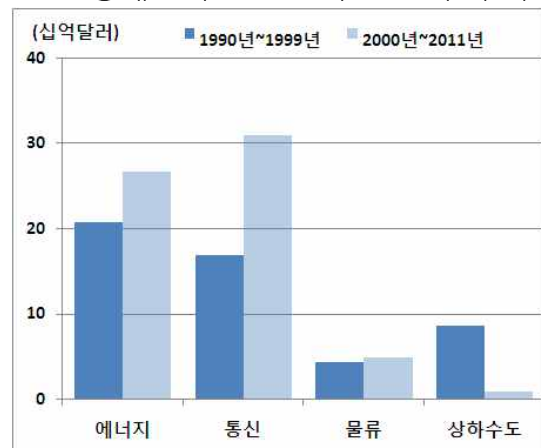
- 1990년대에 비해서 2000년대 들어서 에너지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28.9%, 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82.7%,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15.9% 증가
- 그러나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의 인프라 수준은 여전히 전세계 평균을 하회하고 있고, 경제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인프라 수요가 창출될 전망

<VIP 경제권의 도시화 추이>



자료: United Nations(2011년).  
 주: 도시화율 = 도시 인구 / 전체 인구.

<VIP 경제권의 민관협력 인프라 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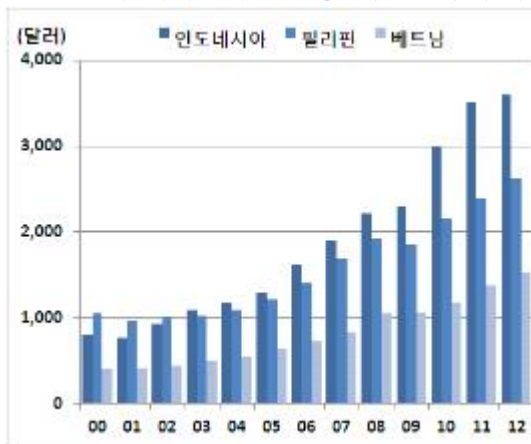


자료: Worldbank.

④ (중산층) 일인당 소득 수준 향상에 따른 중산층의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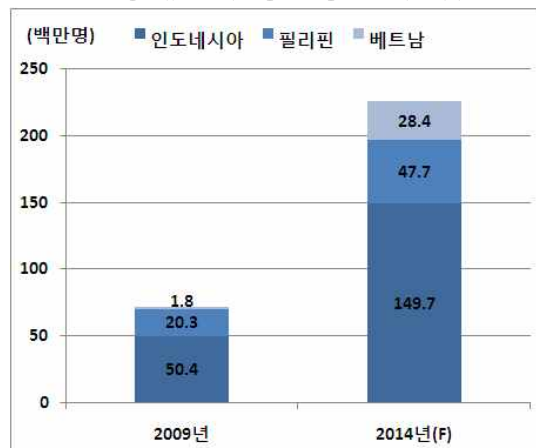
-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국민의 일인당 소득 수준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 2012년 기준 인도네시아(3,590달러), 필리핀(2,610달러), 베트남(1,530달러)의 일인당 소득은 중국(6,630달러)이나 인근의 태국(5,680달러)보다 낮은 수준
  - 그러나 2000년 이후 인도네시아의 일인당 소득은 연평균 13.6%, 필리핀은 7.0%, 베트남은 11.4%씩 성장하고 있음
  - IMF에 따르면, 향후(2013년~2018년)에도 인도네시아의 일인당 국민소득은 연평균 7.6%, 필리핀은 8.2%, 베트남은 8.4%씩 성장할 전망
  
- VIP 경제권 국가들의 일인당 소득 향상은 중산층 증가로 이어지고 있음
  - VIP 경제권의 중산층은 2009년 725만 가구에서 2014년 2,258만 가구로 연평균 25.5% 증가할 것으로 예상
  - 가처분 소득 3,000달러(연평균) 이상의 중산층은 2009년 기준으로 인도네시아 약 504만, 필리핀 203만, 베트남 180만 가구로 추정
  - 2014년에는 인도네시아 1,497만, 필리핀 477만, 베트남 284만 가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VIP 소속 국가들의 일인당 국민소득 추이〉



자료: IMF.  
주: 명목소득 기준.

〈VIP 경제권의 중산층 인구 규모〉



자료: Nomura, Worldbank, CEIC.  
주: 가계 가처분소득 3,000달러(연평균) 이상을 중산층으로 정의.

⑤ (자원) 풍부한 지하자원 보유

- 인도네시아는 많은 종류의 지하자원과 농업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자원 부국
  - 주석(매장량 기준 세계 2위), 니켈(세계 6위), 금(세계 6위), 보크사이트(세계 6위), 구리(세계8위) 등 다양한 광물자원은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의 동력
  -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에너지 자원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서 소비되는 천연가스의 대부분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수입되고 있음<sup>7)</sup>
  - 농업자원 측면에서 팜오일 생산은 세계 1위이며 고무(2위), 코코아(2위), 커피(4위) 등의 생산에 있어서도 세계적인 영향력을 발휘
- 필리핀은 세계 10대 광물 생산 잠재국, 동남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에 이어 2대 광물자원 부국이고 베트남도 다량의 자원 보유
  - 필리핀 정부는 광물자원 매장 가치를 8,400억~10,000억 달러 규모로 추정하고 금속광물 매장량을 79억 톤, 비금속광물 매장량을 510억 톤으로 추산
  - 필리핀은 구리, 금, 은, 니켈 등 15가지 이상의 금속광물과 석회석, 대리석 등 20가지 이상의 비금속광물을 보유<sup>8)</sup>
  - 베트남 또한 티타늄(전세계 매장량의 5% 차지) 등 여러 종류의 광물을 보유

<인도네시아의 주요 자원 매장·생산량> <필리핀과 베트남의 주요 자원 매장량>  
(단위: 백만톤)

	단위	매장량	생산량		필리핀	베트남		
			2010년	2011년				
구리	천톤	28,000(8위)	872	625	구리	2,968	석탄	3,550
니켈	천톤	3,900(6위)	232	290	니켈	953	석유	2,300
주석	천톤	800(2위)	56	42	크롬	18	보크사이트	4,175
금	톤	3,000(6위)	120	96	철광석	410	티타늄	3,450
보크사이트	백만톤	1,000(6위)	-	37	알루미늄	292	철광석	759
석유	백만톤	600(28위)	48	46				
천연가스	십억 입방피트	104,700 (14위)	7.9	7.3				
석탄	백만톤	5,529(14위)	275	325				

자료:USGS, BP.

주:1) 천연가스 생산량은 일일당 생산량 기준  
2) 괄호 안의 값은 전세계 매장량 순위.

자료:KOTRA(Global Window).

7) 인도네시아는 동남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회원국이었으나 2009년도에 탈퇴함.

8) KOTRA, "필리핀 광물자원 개발/투자 가이드", 2010년 8월.

#### 4. 시사점

- 첫째, 한-아세안 FTA의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해야 한다.
  - 중국 등 브릭스 국가들의 성장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생산 및 소비시장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음을 인식
  - 한-아세안 FTA 체결 이후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교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VIP 경제권 국가들을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하는 방안 모색
  
- 둘째, VIP 경제권의 생산기지, 소비시장으로서의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
  - 중국이나 인접국보다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우선적으로 검토
  - 동남아의 한류 열풍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급증하고 있는 중산층 소비자들이 한국 기업 및 상품에 대해 우호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유도
  
- 셋째, 자원개발, 인프라 건설 등 신사업 기회를 창출해야 한다.
  - 제조업 중심의 투자에서 벗어나 자원개발 시장이나 인프라 건설시장 등 신사업 기회를 선점할 수 있는 적극적인 투자 전략 요구
  - 다만 VIP 경제권에 진출하려는 기업들은 빈부격차의 확대, 부정부패의蔓延 등 위험 요인도 존재한다는 사실에 유의
  
- 넷째, 정부는 경제 교류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 정부는 진행 중에 있는 한국-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과 한국-베트남 FTA를 조속히 타결
  - 한국보다 앞서 VIP 경제권에 활발하게 진출하고 있는 중국이나 일본 정부의 외교 전략을 벤치마킹
  -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은 VIP 경제권의 롤 모델이기 때문에 우리의 성공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범정부 차원의 노력 필요 **HRI**

안중기                      연구원 (joonggiahn@hri.co.kr, 2072-6242)  
 백홍기                      수석연구위원                      (hkback@hri.co.kr, 2072-6228)

<별첨 1> 한국과 VIP 경제권과의 경제 교류 및 진출 여건

○ (경제 교류) 한국과 VIP 경제권과의 무역 및 투자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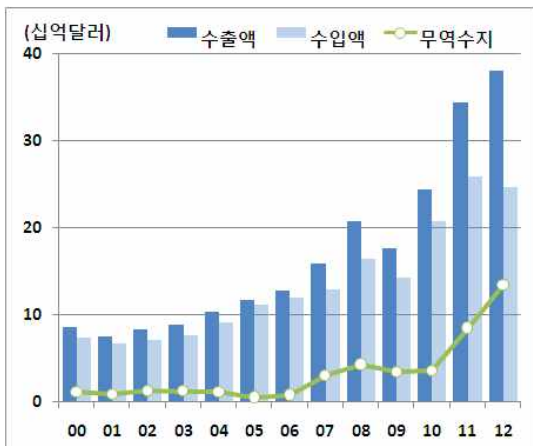
- (무역) 한국과 VIP 경제권과의 무역 규모는 2000년 이후 연평균 6.2%씩 성장

- 교역규모는 2000년 160억 달러에서 2012년 274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동일 기간 무역수지 흑자 또한 약 17억 달러에서 134억 달러로 증가
- 베트남과의 교역규모는 연평균(2000년~2012년) 21.6%, 인도네시아와는 12.3%, 필리핀과는 7.9%씩 지속적으로 성장
- 한국은 인도네시아와의 교역을 통해서도 지속적인 무역수지 적자<sup>9)</sup>를, 베트남 및 필리핀과의 교역에서는 지속적인 무역 흑자 달성<sup>10)</sup>

- (투자) 한국의 VIP 경제권에 대한 FDI는 2005년 이후 급격히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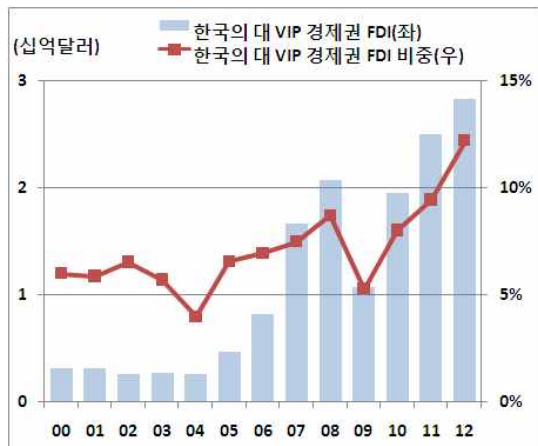
- 2005년 이후 연평균 34.9%씩 증가하였고, 2012년 기준 한국의 대외투자 중에서 12.2%를 차지
- 2012년 VIP 경제권에 대한 28억 달러의 투자 중에서 9억 3,000만 달러(33%)는 베트남, 9억 6,000만 달러(34%)는 인도네시아, 9억 3,000만 달러(33%)는 필리핀에 투자
- 투자의 대부분은 저임금의 노동력을 활용하기 위해 제조업에 집중

<한국의 對 VIP 경제권 무역 추이>



자료: 무역협회.

<한국의 對 VIP 경제권 FDI 추이>



자료: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투자금액 기준), 주: 한국의 총 FDI에서 VIP 경제권이 차지하는 비중.

9)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천연가스, 유연탄 등 자원을 주로 수입하고 있음.

10) 한국은 인도네시아로부터 17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베트남으로부터는 105억 달러 흑자를, 필리핀으로부터는 49억 달러 흑자를 달성(2012년 기준). <별첨2> 참조.



○ (진출 여건) VIP 경제권은 지속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지만, 진출시 투자 환경 및 위험 요인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요구

- VIP 경제권 소속 국가들의 전반적인 인프라 수준은 전세계 평균을 하회
  - 향후 VIP 소속 국가들의 경제 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프라의 수준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그러나 현재의 인프라 수준은 인도네시아 3.7, 필리핀 3.6, 베트남 3.2로 전세계 평균(4.3)을 크게 하회
  - 열악한 인프라 환경이 제조업 발달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이유로 지적되고 있으므로 현지 진출시 유념할 필요
- VIP 경제권 국가들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또한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음
  - 창업, 투자자보호 등 전반적인 기업환경은 베트남 99위, 인도네시아 128위, 필리핀 138위로 전세계 180여 국가 중에서 중하위권에 불과
  - 한편 부정부패의 만연, 불필요한 규제 및 비효율적인 행정관행 등이 기업경영을 어렵게 만드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
- 이외에도 지역 및 계층 간 빈부격차의 확대로 인한 사회적 불안정성 심화 등 다양한 위험요인 내재
  - 인도네시아에서 이슬람 세력에 의한 테러 발생 가능성, 필리핀에서 이슬람 반군과의 정치적 충돌 가능성 등이 있음<sup>11)</sup>

<VIP 경제권의 인프라 수준>

	도로	철도	항만	항공	전기	종합
인도네시아	3.4	3.2	3.6	4.2	3.9	3.7
말레이시아	5.4	4.9	5.5	5.9	5.9	5.4
필리핀	3.4	1.9	3.3	3.6	3.7	3.6
태국	5.0	2.6	4.6	5.7	5.5	4.9
베트남	2.7	2.6	3.4	4.1	3.1	3.2
전세계 평균	4.0	3.1	4.3	4.6	4.5	4.3

자료: WEF(2012-2013).  
주: 7점 만점 기준.

<VIP 경제권의 기업환경평가 순위>

	2010	2011	2012	2013
인도네시아	115위	121위	129위	128위
말레이시아	23위	21위	18위	12위
필리핀	146위	148위	136위	138위
태국	16위	19위	17위	18위
베트남	88위	78위	98위	99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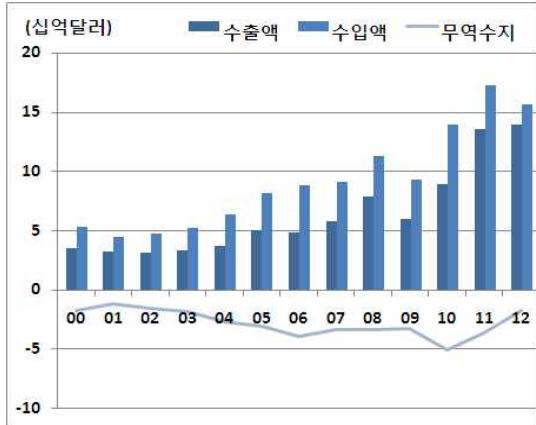
자료: Worldbank(Doing Business).  
주: 순위가 높을수록 기업환경이 좋지 않음을 의미.

11) 수출입은행 및 KOTRA(Global Window) 자료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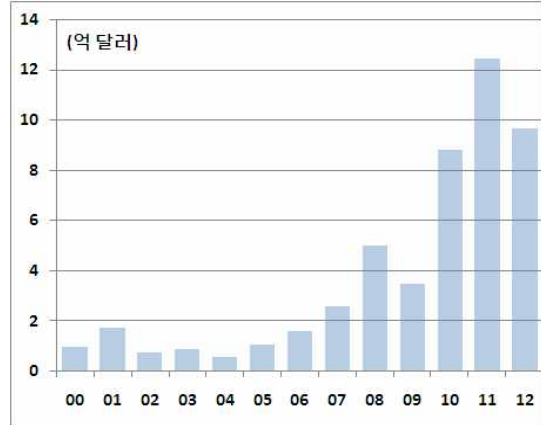
<별 첨 2> 한국과 VIP 경제권 국가들의 교역 및 투자 추이

<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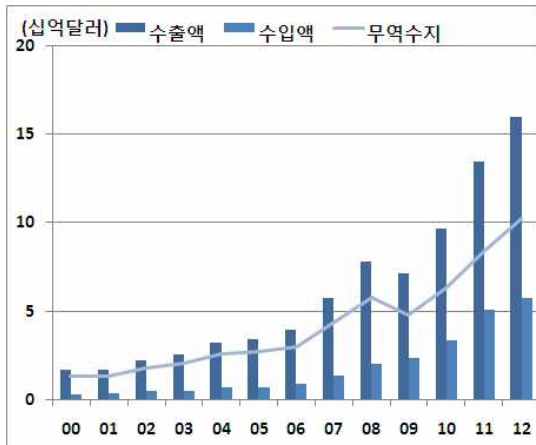
자료:무역협회.

< 한국의 對 인도네시아 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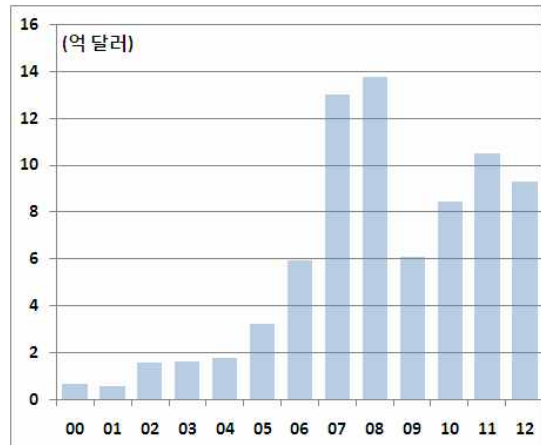
자료: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투자금액 기준.

< 한국의 對 베트남 무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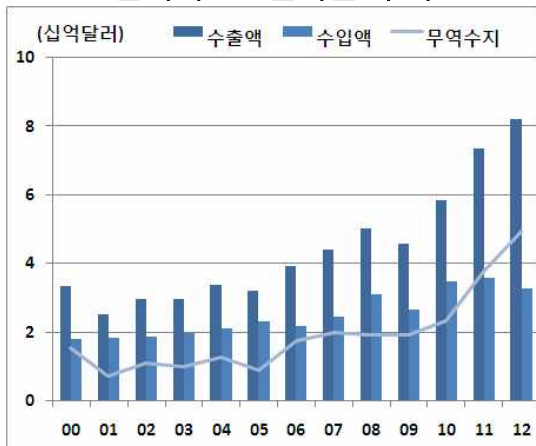
자료:무역협회.

< 한국의 對 베트남 투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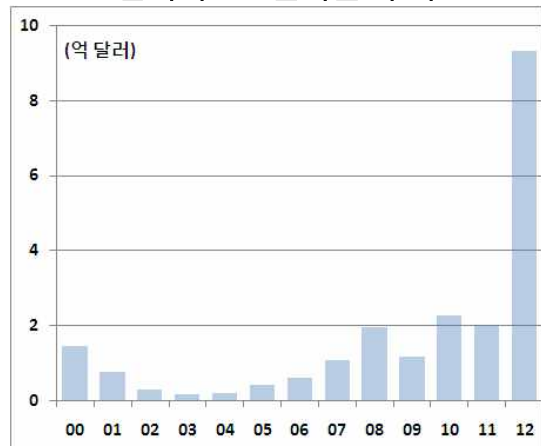
자료: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투자금액 기준.

< 한국의 對 필리핀 무역 >



자료:무역협회.

< 한국의 對 필리핀 투자 >



자료: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  
주:투자금액 기준.

HRI 경제 통계

---

주요 경제 지표 추이와 전망

---

< 국내 주요 경제 지표 추이 및 전망 >

구 분		2011 연간	2012					2013		
			1/4	2/4	3/4	4/4	연간	1/4	연간(E)	
국민 계정	경제성장률(%)	3.7	2.8	2.4	1.6	1.5	2.0	1.5	2.6	
	민간소비(%)	2.4	1.3	1.0	1.7	2.7	1.7	1.5	2.1	
	건설투자(%)	-4.7	-0.4	-3.1	-0.3	-4.2	-2.2	2.4	2.5	
	설비투자(%)	3.6	8.8	-3.5	-6.9	-5.2	-1.9	-11.9	1.0	
대외 거래	통관 기준	경상수지(억 \$)	261	26	112	146	148	431	100	395
		무역수지(억 \$)	308	12	97	75	99	283	57	270
	수출(억 \$)	5,552	1,348	1,401	1,331	1,398	5,479	1,354	5,589	
	증감률(%)	(19.0)	(2.9)	(-1.7)	(-5.8)	(-0.4)	(-1.3)	(0.5)	(2.0)	
	수입(억 \$)	5,244	1,337	1,304	1,257	1,298	5,196	1,297	5,319	
	증감률(%)	(23.3)	(7.8)	(-2.9)	(-6.9)	(-1.1)	(-0.9)	(-3.9)	(2.4)	
소비자물가 상승률(%)		4.0	3.0	2.4	1.6	1.7	2.2	1.4	1.6	
실업률(%)		3.4	3.8	3.3	3.0	2.8	3.2	3.6	3.3	
원/달러 환율(평균, 원)		1,108	1,131	1,152	1,133	1,090	1,127	1,085	1,105	

주: E(Expectation)는 전망치.